

살아 오는 북간도 독립운동과 기독교 운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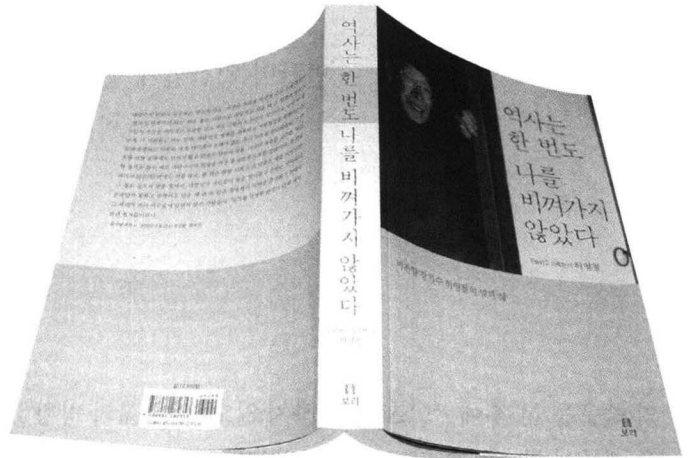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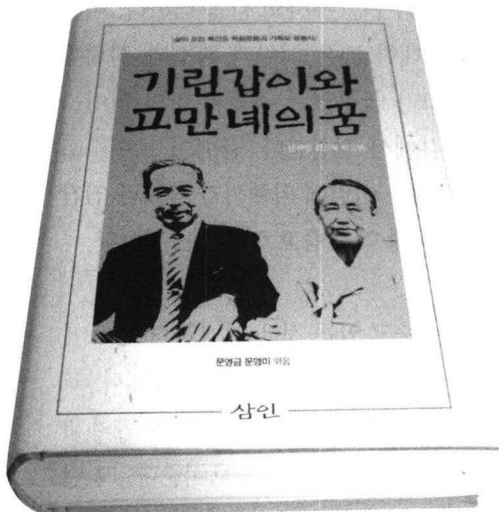
《기린갑이와 고만네의 꿈》(문재인 김신묵 회고록)
 문영금·문영미 엮음·상인 | 746쪽 | 값 28,000원

기린갑이와 고만네, 자신들의 이름보다 문익환 목사의 부모로 더 잘 알려진 문재린 목사와 김신묵 여사의 어린 적 이름이다. “원산 함흥 회령 거쳐/ 눈보라 휘몰아치는 북간도 용정 새장 거리에 서서/ 조선 독립 만세/ 조선 통일 만세/ 목이 터지게 부르다가 쓰러지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던 두 부부의 삶은 한국 현대사 90년을 관통한다. 특히 북간도로 이주해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던 문재린 목사와 김신묵 여사의 집안은 한국의 초기 기독교 운동사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 이 책의 의미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문재린 목사가 1976년경부터 ‘웅기장이 손의 흠덩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시작했으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한 가운데를 지나면서 초안만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고, 회고록 완성을 생의 마지막 과제로 생각했던 문익환마저 1994년 세상을 떠났다. 결국 기린갑이와 고만네의 손녀들인 문영금과 문영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남긴 회고록 원고와 주제별로 정리한 노트, 일기, 여행기, 편지, 기고문 등의 자료와 구술테이프, 사진 등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선보였다. 한신대 김경재 교수의 책에 대한 설명은 그래서 더욱 각별하게 와닿는다.

“이 책의 의미는 문익환·문동환 등 우리에게 다소 귀에 익은 사회 유명 인사들의 가족 이야기를 듣는 데 있지 않다. 그 가족 이야기를 통하여 20세기 한민족이 겪은 ‘도전과 응전’, 빛과 그림자를 파노라마처럼 보게 되는 데 있다. 특히 북간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한민족의 공동체가 어떻게 열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민족 독립, 신앙과 양심의 자유, 인간 평등과 자유정신, 그리고 민족 화해·통일 운동까지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되었는가 그 비밀의 코드를 읽게 되는 것이다.”

장동석 기자



비전향 장기수를 통해 본 한국현대사의 원형

역사: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허영철 구술 기록 | 부리 | 392쪽 | 값 12,500원

1920년에 태어난 허영철 선생은 올해로 87세이다. 1945년 해방이 되던 해 남로당에 입당, 초보 노동당원으로서 혁명가의 길을 걸었고, 남과 북에서 모두 인민위원장을 지냈고, 1953년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허영철은 공무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년 만에 체포된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미수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36년의 긴 수감생활을 거쳐 마침내 1991년 출소해 지금에 이른다.

이 책을 통해서 비전향 장기수로 살았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는 허영철의 삶을 옹호하고 그가 가진 신념이 옳다는 것을 얘기하지는 게 아니다. 사실, 신념처럼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 신념은 그냥 신념일 뿐이다. 허영철을 따라 일제시대,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남북분단, 4·19와 5·16, 5·18과 광주항쟁, 6월 항쟁과 6·15 선언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건너 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원형을 읽을 수 있다.

2005년 11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온 평양이야기도 엿볼 수 있다. 허영철을 이제껏 살게 해 준 힘의 원천인 공화국을 무려 45년 만에 다시 돌아가 본 평양이기에, 그에겐 매우 특별한 감회와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 아쉬움, 절망과 희망을 읽을 수 있다.

책의 뒷장에는 허영철의 개인 연보와 함께 한국사 연표까지 실었다. 한국사 연표는 1945년 뒤로는 남북의 연표를 나란히 실어 충실한 한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요즘 방영하는 TV 드라마 《서울 1945》를 놓고서도 좌익 드라마라는 등 말들이 많다. 오후 6시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정윤희 기자

인문학과 과학의 특별한 조우

〈인문학의 창으로 본 과학〉

김용석 외 지음 | 한겨레출판 | 244쪽 | 값 10,000원

부제 '인문학자 10명이 쓴 유쾌한 과학 이야기'는 아마 이런 대화 마당이 예사롭게 진행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은연중 나타낸 문구였을 것이다. 관념의 세계에서 사유의 벽을 높게 쌓아가던 인문학자가 눈에 보이는 자료, 과학적 분석 이외의 것은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과학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드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이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과연 둘 사이의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 하는 혐의 가득한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진지하고 의미있는 유쾌함"이다. 우선 글을 쓴 인문학자들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긴장' 속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는 팍 차 있을지언정 마음이 막혀있진 않았다. 서로 다른 분야에의 경외감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공통된 주제에의 색다른 접근을 즐기고 있었다.

이거용 동국대 인도철학 교수가 손동철 경북대 물리학교수(입자물리학 전공)를 만나는 장면은 '낯선 즐거움'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숫자가 들어가는 학문을 기피한다는 이거용 교수는 "따지고 보면, 연구하는 대상을 쪼개고 또 쪼개는 점에서 입자물리학의 실험과정은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게다가 쪼개는 목적과 동기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작은 입자라고 믿어오던 입자가 그보다 더 작게 쪼개질 때 물질의 근원에 더 가까워지는 물리학처럼, 하나의 개념이 더 세밀하게 쪼개지는 것은 철학자가 우주의 궁극적 실재에 다가서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한 덕분이다.

반면, 여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학자의 인식체계는 이 교수의 평소 버릇에서 나왔다. '예습'으로 희스입자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진 이교수에게 손동철 교수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에 어떤 편견이 기어드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라는 말로 자신이 속한 세계의 특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것이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겠다. 책이 전달하는 효용을 굳이 따지자면 '지식과 재미'이고, 이 책에서 독자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익을 맞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송보경 기자



철학? 소설처럼 읽고 영화처럼 즐겨라

〈철학콘서트〉 황광우 지음 | 웅진 지식하우스 | 280쪽 | 값 12,000원

시인 황지우의 동생으로, 1980년대 노동운동가로 이름을 알렸던 황광우가 철학서를 썼다. 《철학콘서트》라는 책의 제목처럼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10인의 철학자가 등장하여 각자 자신만의 색깔로 무대를 꾸민다.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마르크스 등 세상 모든 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사상가들이 골치 아픈 번역서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시각으로 생생하게 살아 숨신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소크라테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상대방의 논리적 약점을 찾아내는 그의 산파술은 그가 사형판결을 기다리는 재판정에서 진수를 드러낸다. 멜레토스와 소크라테스의 논박을 읽다보면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소위 논술의 원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동감 있는 해석은 동양 철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고 한 공자가 14년간 '초상집 개'와 같은 유랑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에 대한 대답도 공자와 제자들 간의 대화로 풀어낸다.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나 석가의 《반야바라밀다심경》,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도 황광우의 입담에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고전의 갑옷을 벗고 가벼워진다. 물론 독자가 느끼는 이런 가벼움은 고전에 대한 저자의 깊은 내공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가치를 담보한다.

난해한 사상에 앞서 철학자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관점이 보이고 그것이 흥미로운 철학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30년 철학 읽기에서 터득한 저자의 비법이라고 한다. "그는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고전들의 핵심을 한 실에 꿰어 알아듣기 쉬운 악보로 바꿔서 무대에 올려놓았다"는 김교빈 교수의 표현처럼 이 책은 황광우라는 지휘자가 세계의 석학들을 모아놓고 벌이는 매력적인 철학의 대향연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주연 기자